

**설교요약**

비전 4. 선교 명령을 실천하는 교회

**오늘의 말씀: 바나바 묵상(06) - 안디옥 교회의 탁월함(02)**

- 안디옥 교회의 탁월함은, 간절함으로 성령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세와 태도에 있었습니다.

- 안디옥 교회의 탁월함은, 최고의 것을 드리는 순종하는 자세와 태도에 있었습니다.

**담임목사 칼럼 - 바른 우선순위 설정은 내 삶을 새롭게 합니다.**

주님은, 마 6:33 절에서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 받을 모든 것에서 더함을 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먼저 이 모든 것,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구비된 후, 나중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려 합니다. 이처럼 순서가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었기에, 우리 삶이 뒤죽박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욱더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삶에서 적용해야 함을 알지만, 실제 삶에서 열매가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삶의 기준의 바른 우선순위 설정이 잘 못 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물질이 먼저인 분은 물질이 우선순위고, 건강이 먼저인 분은 건강이 우선순위 맨 앞에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먼저라면,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 머리에 있습니다. 문제는, 머리로만 하나님이 우선순위 처음임을 알지만, 실제 삶은, 내 것, 나의 생각, 나의 판단과 선택이 먼저가 됩니다. 그렇게 기준이 틀렸기에, 우리 삶이 선한 열매 맺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과 그 말씀이, 그 나라와 의가 우선순위 처음에 서면, 다른 삶은 자연스럽게 질서를 잡아가고, 흔들리며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면, 그 우선순위를 실제로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적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입술과 머리는 하나님께서 최우선이지만, 삶에서 하나님은 항상 뒷전으로 밀립니다.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면서 실천하지 않음이 반복되면서, 그릇된 우선순위로 살아감이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고, 나중에는 그 사람의 인격으로 굳어집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를 바로 안다면, 힘들어도, 그대로 지키는 삶, 그대로 살아가는 삶, 그대로 살아내는 삶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유혹과 타협이 있어도, 그래도 정한 우선순위를 지키며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이전과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한주도 내가 정한 우선순위보다 성령님 은혜로 정한 우선순위를 찾고, 지키며, 더 간증을 만들어내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예배와 모임안내**

비전 5. 이민자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교회

<b>주일예배 1부</b> 8:30am 본당	<b>2부</b> 11:00am 본당
<b>새벽예배</b> 화-금/5:30am/본당 마지막 토/6:00am	<b>금요기도회</b> 8:20pm 본당
<b>중보기도</b> 주일 10:00am/만남의집 목 8:30pm/Zoom	<b>기도하는</b> 매주 금/ 10:00am <b>엄마 모임</b> 만남의집
<b>새가족반</b> 주일2부 예배직후 만남의집	<b>구역예배</b> 매월 첫째주 구역별

**다음세대예배**

<b>영아부예배</b> 11:00am 0-24개월 2층 영아부실	<b>유아유치부예배</b> 11:00am 25개월 - 5세 2층 유치부실	<b>유초등부예배</b> 11:00am 1-5학년 유치등부실
<b>중등부예배</b> 10:30am 6-8학년 중등부실	<b>고등부예배</b> 10:30am 9-12학년 고등부실	
<b>중고등부 금요모임</b> 매주 금요일 7pm <b>중고등부실</b>		

**한소망학교안내**

<b>한국학교</b> 김민재 교감 201-284-0441	<b>음악학교</b> 한형락 디렉터 201-417-7044
------------------------------------	-------------------------------------

**한소망 세계선교**

<b>온두라스</b> 김인배 목사 산타바바라 6개지역 원주민교회 지원	<b>인도네시아</b> 박만호 선교사 교회 개척과 빈민 구제 사업
---	---

**스포츠동호회**

<b>탁구</b> 월요일 7pm / 체육관 박석록 집사 917-478-6582	<b>배드민턴</b> 목요일 8pm / 체육관 김창우 집사 201-300-7474	<b>미술교실</b> 화요일 9am, 7pm / 로댕의집 정재학 집사 714-588-7468	<b>바둑 동호회</b> 목요일 7pm / 유아부실 917-478-6582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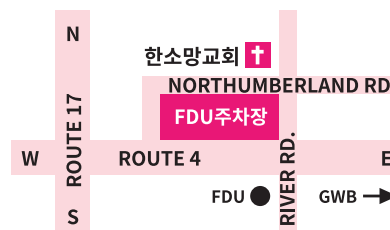
**월별계획 - 9월**

- 9/ 6 한소망 한국학교 가을학기 개강
- 9/ 8 한소망 부부교실
- 9/ 13 AWANA 가을학기 개강
- 13-15 창립 39주년 말씀 집회
- 15 장로 임직식
- 18 성경공부 개강
- 22 구역장 모임
- 24 사역부서장 회의(Zoom)
- 29 전교인 야유회

**교회약도 및 주차안내**

노약자 및 영아부 부모님외에는 FDU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을 위한 주차장은 본당 앞에 있습니다.**



**한소망교회 HOPE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정세훈 Rev. Se Hoon Jeong  
1190 River Road, Teaneck, NJ 07666  
Tel. 201.801.9100

[www.hopechurchusa.org](http://www.hopechurchusa.org)



교회설립 1985년 9월 15일

**2024년 교회표어 "견고함으로 넓혀가는 장막터" - 사 54:2 -**

<b>1부</b> 전주 오르간 임례찬송* 600 교회의 참된 터는 예배로의 부름* 인도사 화답송* 찬양대 고백의 기도*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183 빈 들에 마른 풀 같이 기도 최경숙 권사 찬양 그레이스 찬양대	<b>2부</b> 전주 오르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양* 경배와 찬양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 이상훈 장로 교회소식 정세훈 목사 찬양 살롬 찬양대	<b>2024년 9월 22일</b> 1부 8:30 am 2부 11:00 am
<b>성경봉독</b> 사도행전 13:1~3	<b>설교</b> 바나바 묵상(06) - 안디옥 교회의 탁월함(02)/ 정세훈 목사	
<b>봉헌</b> 1부 50장 1절/ 2부 음악학교 양상블	<b>봉헌찬송*</b>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b>봉헌기도*</b> 정세훈 목사	<b>교회소식</b> 정세훈 목사	<b>결단찬양*</b>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b>축도*</b> 정세훈 목사
<b>찬송*</b> 314 내 구주 예수를		
<b>축도*</b> 정세훈 목사		

**한소망 만나**

월 고린도전서 9:13~18	화 고린도전서 9:19~23
수 고린도전서 9:24~27	목 열왕기하 14:1-29
금 히브리서 8:1-6	토 고린도전서 10:1~7
새벽예배 화-금 5:30 am/ 토 6:00 am (매월 마지막 주)	

**금요 열린예배 8:20pm**

<b>찬</b>	<b>양</b>	다함께
<b>기</b>	<b>도</b>	다함께
<b>설</b>	<b>교</b>	정세훈 목사

[YouTube.com/hopechurchusa](https://www.youtube.com/hopechurchusa) 유튜브에서도 담임목사님의 설교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